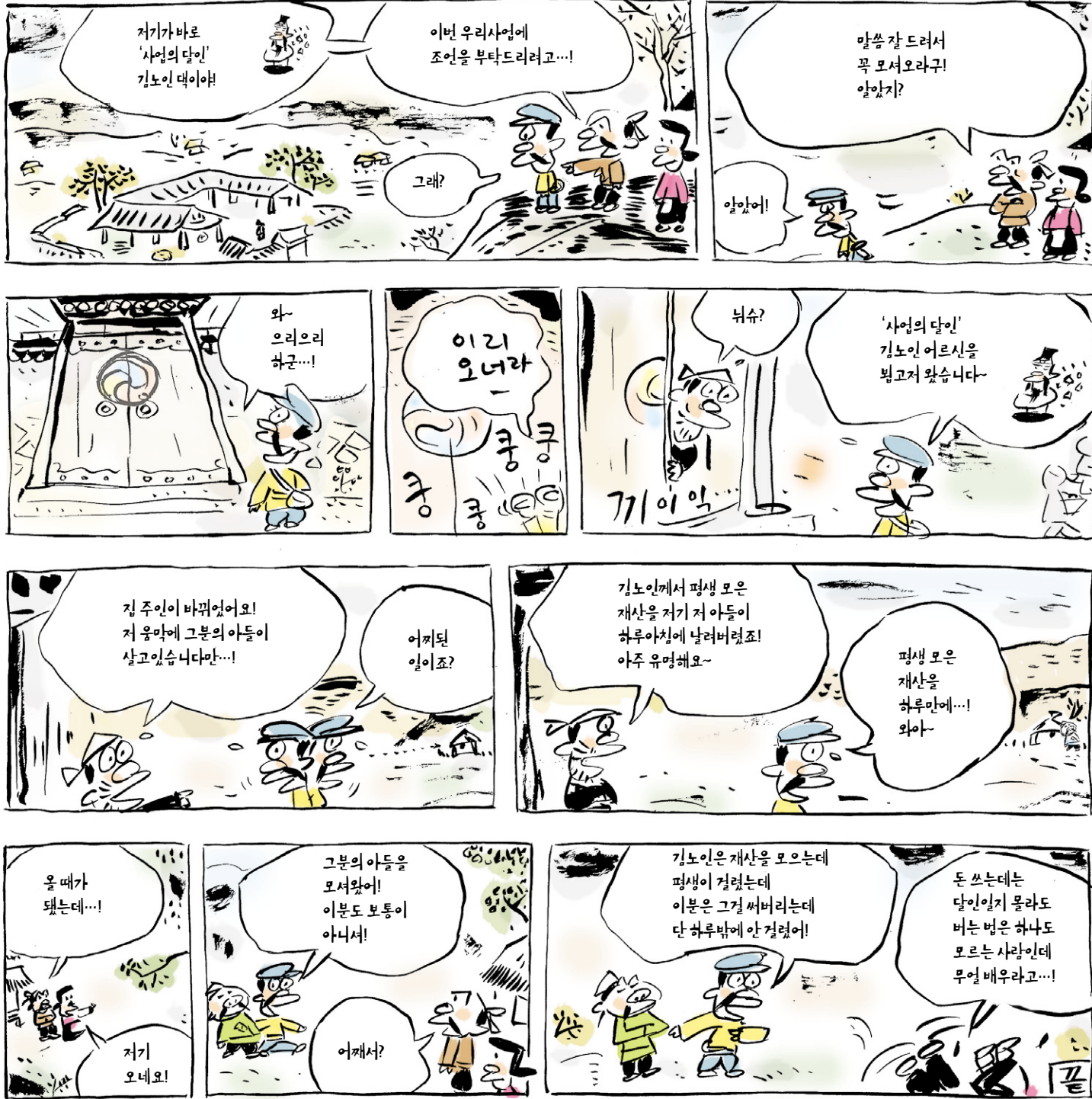


웃둥 보살 빛둥 거사 <49>

구성 : 김흥민



웅기장이 대신 나귀를 사 온 제자

<백유경(百喻經)>

옛날 어떤 스승이 큰 잔치를 하기 위해 제자에게 말했다. "질그릇을 구해 잔치에 쓰려고 하니 시장에 나가 웅기장이 한 사람을 데려 오너라." 제자가 웅기장이 집으로 가니 웅기장이 울면서 괴로워 하고 있었다. 제자가 "왜 그리 슬퍼하는 거?"라고 묻자 웅기장은 "여러 해 고생한 끝에, 그릇을 만들어 팔려 했는데 이 나쁜 나귀가 잠깐 사이에 모두 부숴 버려서 괴로워한다"고 말했다. 제자는 "훌륭하다"며 나귀를 샀다. 나귀를 타고 돌아온 제자에게 스승은 "웅기장은 데려오지 않고 나귀만 데리고 와 무엇에 쓰려는 거?" 하자 제자는 "웅기장이 오랫동안 만든 질그릇을 잠깐 사이에 모두 부숴버린 훌륭한 나귀"라고 답했다. 스승은 "너는 참으로 미련해 아무 지혜도 없구나. 지금 이 나귀는 부수는 데는 뛰어나지만 백 년을 두어도 그릇 하나 만들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상 사람들도 그와 같다. 천백 년 남의 공양을 받고도 조금도 그것을 값을 줄 모르면서 항상 손해만 끼치고 끝내 이익 뭍이 없다. 은혜를 배반하는 사람도 그와 같다.



옛 판화의 세계

금대를 받들어 영접하다 금대영접(金臺迎接)

<석씨원류>에 등장하는 이 삽화는 당나라 때의 스님 석회옥(釋懷玉)이 정토 염불수행으로 극락왕생하기를 염원했으나, 성중들이 나타나 은대로 맞이하려 하자, 자신은 상품상생하기 위해 수행했으며 금대로 맞이하라고 은대를 거부하자, 성중들은 사라지고 아미타부처님과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이 나타나 금대로 영접하는 모습을 관각한 작품이다. 석회옥 스님의 속성은 고씨이며, 단구 사람이다. 남루한 옷과 한 끼의 밥으로 항상 살아 있었지만 하고 늘지 않은 채 수행했으며, 참회의 법을 행하면서 늘 하루의 일과로 아미타불을 소리내어 5만 번을 염불하고 <아미타경> 다섯 권을 외었다고 한다. 회옥 스님을 후대 사람들은 정업행자의 사표라고 칭송했다. 본문을 살펴보면 '천보(天寶) 원년 6월 9일에 갑자기 서쪽 하늘에 항하사(恒河沙) 같이 무수한 성인의 상이 나타났으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백으로 된 연화대를 머리 위에 받들고 공중에서 내려왔다. 이때 회옥 스님은 말했다. '나는 금대를 얻어야 합당한 사람이니 은대는 도로 가져가라!' 그 후 회옥 스님이 갑절로 경건한 뜻으로 정진했다니 공중에서 소리로 알렸다. '스님의 머리 위에 이미 광휘가 있다. 가부좌를 맺고 앉기 바란다. 아미타불께서 법인(法印)을 주실 것이다.' 이때 부처님의 광명이 방에 가득했는데 회옥 스님은 손으로 신호해 사람들을 물러가게 하면서 말했다. '이 광명을 건드리지 말아라.' 6월 13일에 이르자 다시 두 번째로 백호광이 나타나고 성스런 대중이 방에 가득하게 있었다. 이때 회옥 스님이 말했다. '만약 기이한 향기



고려시대 석회옥 스님(石懷玉)의 정토 염불수행으로 극락왕생하기를 염원했으나, 성중들이 나타나 은대로 맞이하려 하자, 자신은 상품상생하기 위해 수행했으며 금대로 맞이하라고 은대를 거부하자, 성중들은 사라지고 아미타부처님과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이 나타나 금대로 영접하는 모습을 관각한 작품이다. 석회옥 스님의 속성은 고씨이며, 단구 사람이다. 남루한 옷과 한 끼의 밥으로 항상 살아 있었지만 하고 늘지 않은 채 수행했으며, 참회의 법을 행하면서 늘 하루의 일과로 아미타불을 소리내어 5만 번을 염불하고 <아미타경> 다섯 권을 외었다고 한다. 회옥 스님을 후대 사람들은 정업행자의 사표라고 칭송했다. 본문을 살펴보면 '천보(天寶) 원년 6월 9일에 갑자기 서쪽 하늘에 항하사(恒河沙) 같이 무수한 성인의 상이 나타났으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백으로 된 연화대를 머리 위에 받들고 공중에서 내려왔다. 이때 회옥 스님은 말했다. '나는 금대를 얻어야 합당한 사람이니 은대는 도로 가져가라!' 그 후 회옥 스님이 갑절로 경건한 뜻으로 정진했다니 공중에서 소리로 알렸다. '스님의 머리 위에 이미 광휘가 있다. 가부좌를 맺고 앉기 바란다. 아미타불께서 법인(法印)을 주실 것이다.' 이때 부처님의 광명이 방에 가득했는데 회옥 스님은 손으로 신호해 사람들을 물러가게 하면서 말했다. '이 광명을 건드리지 말아라.' 6월 13일에 이르자 다시 두 번째로 백호광이 나타나고 성스런 대중이 방에 가득하게 있었다. 이때 회옥 스님이 말했다. '만약 기이한 향기

를 맡게 되면 나의 업보는 곧 다하게 될 것이다.' 제자 해명이 물었다. '스님은 지금 어느 국토로 가십니까?' 회옥 스님은 계승으로 대답했다. '칭정하고 교결해 먼지 때 없는 연꽃의 화생(化生)을 부모로 삼는다. 나는 수도해온 지 10겁이 지났으니 길이 사바세계를 떠나 정토로 돌아가도다.' 계승을 설하고 나니 향기가 공중에 가득했고 바다같이 많은 대중이 가득한 가운데 아미타불과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이 나타났는데 몸은 자금 황금색이었으며 함께 금강대를 물고 와서 영접했다.' 본문에서 보여주듯 회옥 스님은 오직 한 발 밖에 없는 무명옷을 입고 한 끼 식사에 장좌불와하면서, 참회법을 행해 극락왕생의 길을 보여주시는 정토행자의 사표이시다. 선학 스님(명주사 교관학박물관장)



시가 있는 도량

유마힐 민달팽이

배춧잎 유마경을 읽는다 섬유질 행간마다 푸르게 돌는 경을 바람이 도반 되어 따라 읽는 길,

다가, 눈부신 햇살 등에 지고 비탈진 고갈길 건너는 행과 행 사이, 등뼈보다 더 물렁한 발자국 따라

곱게 누벼진 눈독길 발목길 밭줄 치다가, 둥근 알 품은 구렁의 뒷가슴 한나절 내내 읽다가, 들판에 걸터앉은 구름 한 자락 문계에게 받아 적다가, 소낙비 젖은 수풀 이슬 도르르 도로 외우

바람도 길도 배추 잎 되는 초록 빛, 저 불이법 문(不二法門)!

- 강영은(『불교문예』2009년 여름호)



45인승 최신행 관광버스 무료지원합니다!

삼사순례 · 방생법회

순례지

- ① 금산 보석사, 무주 안국사, 영동 영국사
- ② 관촉사, 개태사, 쌍계사
- ③ 갑사, 신원사

방생지

- ① 금산 부리면 적벽강
- ② 영동 양산 금강상류

언제든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소장: 정성운 / H,P: 010-5541-5535 / TEL: 070-7764-9002

금산인삼영농조합법인

